

삼성 초사업장,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

카본트러스트 '트리플 스탠다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 인증
수십년간 다각도 노력 인정받아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카본트러스트 '3관왕'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9개 사업장에 대해 카본트러스트로부터 탄소와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트리플 스탠다드' 라벨도 획득했다. 3년간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 3.7%, 물 사용량 2.2%, 폐기물 배출량 2.1%를 저감하고 각분야 경영 체제에 대한 종합 평가 기준을 만족한 기업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2019년 미국,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으며, 국내 사업장의 경우 태양광, 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해 일부 사무실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온실가스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온실가스 저감 장치에 들어가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는 등 탄소 저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0년 생산량 기준 환산시 약 13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했으며(원단위 기준 9.6% 저감), 이는 서울시 2배 면적에 해당하는 소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물 사용량 절감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초순수를 정제하고 남은 물을 옥상 습식 세정 시설, 냉각탑 등에 재

사용했고, 멤브레인(필터) 기술을 활용한 폐수 정화를 통해 물 재이용량을 높였다. 반도체 전 사업장의 2020년 물 재이용량은 약 7000만 톤으로, 2018~2019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일부 중수도 설비를 통합하여 설비 운전 효율을 높이고, 제조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물 사용량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생산량 기준 환산시 물 사용량 1025만 톤을 감축했다. 화성시와 용인시의 약 200만 인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비슷한 규모다.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소재를 바꿔 폐기물 발생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폐수 슬러지를 대폭 감축했고, 라인에 입고되는 제품의 포장 기준을 수립해 골판지 사용량, 비닐 포장 횟수, 노끈 묶음 횟수 등을 줄여 일회용 포장재 배출량도 줄였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하며 임직원도 폐기물 절감에 동참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 생산량 기준 환산시 3만5752톤의 폐기물을 감축했다.

삼성전자 DS부문 지속가능경영사 무국장성대 전무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 물, 폐기물 분야에서 수십 년간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사업장 경영지표로 관리해왔다"라며, "초미세 공정 기반 저전력 반도체, 친환경 수처리를 통한 지역 생태계 복원, 온실가스 저감 설비 개발 등으로 반도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SK(주), '청록수소' 투자 수소사업 확장 가속화

SK(주)가 친환경 수소 사업에 투자를 더 하면서 친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한다.

SK(주)는 3일 미국 모놀리스에 투자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모놀리스는 세계 최초로 청록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한 회사다. 독자 개발한 반응기에 천연기를 주입해 열분해하는 방식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청록수소 양산 공장을 완공하면서 유일하게 상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청록수소는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 반응기에 주입해 수소(H2)와 고체탄소(C)로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않아 친환경 청정수소로 불린다. 블루수소 경제성과 그린수소 친환경성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SK(주)는 모놀리스에 수소사업 전략적 파트너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리딩투자자로 이사회 의석도 확보했다. 미국 최대 개발회사인 넥스트에라 등도 함께 투자했다.

SK(주)는 그동안 수소 생산방식 다변화, 수요개발 확대, 글로벌 시장 선점 등 다각적으로 수소사업 육성전략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투자로 청록수소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면서 청정 수소 리더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김재용 기자

SKB "‘사랑의 도시락’ 계속 배달합니다"

홀몸 어르신 감사 손편지 보내
도시락 배달 10월까지 연장 확대

"매일 도시락을 받게 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 증세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관심을 가져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따뜻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후원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근 SK브로드밴드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 중인 70대 홀몸 어르신이 직접 적은 감사 손편지였다. 편지에는 다른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었다.

SK브로드밴드는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오는 10월까지 연장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 1·4분기 경기 수원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사랑의 도시락'을 하절



SK브로드밴드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협약식에 참석한 김보기 SK정술노인복지관장(왼쪽부터), 조영호 SK브로드밴드 SV추진담당, 박진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복 참살이협동조합이사장이 웃고 있다. / SKB

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들에 대한 후원을 강화한 결정이다.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영세식당이나 사회적기업에 도시락을 주문해 매출에 도움을 주고, 이 도시락을

복지시설 운영중단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상생모델 사업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올 1·4분기(1~3월) 경기 수원시 홀몸 어르신 180분께 도시락 1만3000여식을 지원했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속적인 협

업 의사를 밝혔다.

홀몸 어르신들의 감사 메시지도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도시락을 받으신 어르신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셨다"며 "회사 구성원 모두 따뜻한 밥 한 끼의 힘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차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오는 10월까지 3만3000여식을 홀몸 어르신들께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워지는 날씨를 고려해 기존 도시락에서 가공식품 등 대체식으로 급식 방법도 추가한다. 수원시 사회적기업 3곳, 6개 지역복지관이 함께 급식과 배달을 협력한다.

SK브로드밴드 조영호 SV추진담당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i@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주) C&C, 글로벌 하이테크 사업 진출

브라이트랩과 공동개발 맞손

SK(주)C&C는 3일 미국 제조 AMHS(자동화 물류 반송시스템) 전문 기업 브라이트랩(BriteLab)과 '글로벌 제조 하이테크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브라이트랩은 미국 선두 반도체 AMHS 전문기업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엔엑스피반도체, 온세미, 글로벌 파운드리, 에스티마이크로, 티에스엠씨, 에스에스엠씨, 유엔씨 등 글로벌

24개의 200mm 및 300mm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AMHS에 기반한 제조 하이테크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브라이트랩이 SK(주)C&C가 국내 제조 산업 현장에 적용 중인 스마트 제조 플랫폼·솔루션의 우수성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인하며 이뤄졌다. AMHS는 여러 제조 공장의 복잡한 생산 라인에 맞춰 생산 제품(부품)을 운반하는 OH T 등 여러 무인 반송차를 관리 제어하며 공장 내 빠르고 정확한 자동화 생산을 뒷받침한다. /세윤정 AI전문기자 echo@

에어부산, 사내 '자가검사키트' 비치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약 500일이 된 가운데 에어부산의 선제적인 방역 정책이 호평 받고 있다.

에어부산은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선제적인 방역체계 도입 등을 통해 현재까지 기내에서 승객간 감염병 전파 및 근무 중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즉각적으로 자체 기내 방역 실시 및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

다. 또, 지난해 2월 해외 주요 노선을 비운항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4월 국내 항공사 최초 전 노선 탑승 게이트 앞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했다.

에어부산은 우수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착륙 비행을 실시한 이후 국제관광 비행, 학습비행으로 진화하며 안전하고 색다른 항공여행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CJ올리브네트웍스

화요 공장 스마트 HACCP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가 스마트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을 구축한 화요가 주류업계 최초로 스마트 HACCP 인증을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해 4월 화요의 여주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MES(제조실행시스템) 2차 고도화와 함께 자체 솔루션인 팩토리원HACCP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5월31일 인증을 획득했다.

식품 제조기업은 CCP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 이탈 알림 시스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시 대응할 수 있는 CCP 모니터링 비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 HACCP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윤정 AI 전문기자

KT '올레tv 키즈랜드' 새단장

KT는 올레 tv 키즈랜드의 사용자 경험 환경(UX·UI)을 전면 개편하고 사용 편리성을 높인 키즈랜드 5.0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올레 tv 키즈랜드는 국내 인터넷TV(IP TV) 중 가장 많은 6만 여편의 키즈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다.

키즈랜드 5.0의 특징은 영어놀이맵과 영어놀이 타이머 기능이다. 아이들이 기가지니 세이펜 전용 종이 보드판인 '영어놀이맵'을 세이펜으로 찍거나 "지니아, 영어놀이터 30분 틀어줘"라고 말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영어 콘텐츠가 가득한 영어놀이터 콘텐츠가 재생된다.

영어놀이맵은 기가지니 세이펜 외에도 레인보우펜, 태극펜, 티칭펜, 피노키오펜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집에서 사용하던 세이펜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김나인 기자